



“보수통합” 외친 무소속 도지사 속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참석 보수 단체 주관 토론회서 원 지사, 현 정권 강력 비판

내년 총선 겨냥해 “가짜 촛불정권 심판하자” 주장도 공개 토론회서 작심 발언 정치적 행보 배경에 관심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 아젠 통합과 혁신의 비전 행사에서 원희룡(맨 왼쪽) 제주도지사가 인사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 총선은 촛불 민심이 가득찬 원 지사, 현 정권 강력 비판”이라는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가 탄핵으로 받은 상처를 서로 이해하고 치유해 민심을 모아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치적 발언을 삼가해오던 원 지사가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정권 비판론과 보수 대통령을 역설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 등 보수진영 단체가 주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이 참석해 ‘아젠 통합과 혁신의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 지사는 “통합과 혁신을 위한 제언” 발표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현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완장으로 바꿔치기했고 지금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은 동맹과 충돌하고, 기업에는 벌을 주고, 경제비용은 겁없이 인상시키면서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제현장과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은 이게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권을 견제, 심판하고 싶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민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쪽은 권력이고, 우리는 민심”이라며 “저쪽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자기 훈장 삼아 기득권화했다. 지금 법무부장관 사태가 이것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우리로 한때 권력만 인식하고 민심을 소홀히 하다가 탄핵도 당하고 촛불에 심판당했다. 이제는 분수령을 넘었다. 우리가 민심을 대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현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해주면서, 민심에 의한 권

력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바로 내년 총선은 3년 된 촛불 민심이 가득찬 원 지사, 현 정권 강력 비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서로 이해하고 치유해야 한다. 역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탄핵을 했던 그 지점은 지나갔다. 지금 아젠에는 것발이 여러 개다. 조정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세우면 조정 가능하다”고 보수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시공사도 멈췄던 공사 재개 움직임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궤도 오르나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공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공사가 재개될 것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녹지그룹(자회사 녹지 제주헬스케어유한공사)은 오는 31일까지 공사비 미지급금 680억원 가량을 시공사 3곳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시공사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재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JDC는 녹지그룹이 8월까지 미지급 공사비를 전액 상환

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했고, 약 297억원을 우선 상환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흥동 일원 153만9013㎡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웰빙 푸드존, 의료 연구개발 센터 등을 갖춘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총 1조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콘도미니엄(400실), 힐링타운(255실) 등은 완공했으나 공사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2017년부터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2공항 갈등 풀려면 공론화 나서야”

민주당·정의당 제주도당 도지사·의회 등에 시행 촉구

민주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민이 미래에 떠안게 될 문제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에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제주 제2공항 강행 추진 반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금까지 도민사회의 갈등 심화 이유는 논란과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국토부와 도민의 의

견을 수렴하려 하지 않는 원희룡 도정에 있다”며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용하고 표출하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민공론화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적 존제 이유는 주권자의 요구를 듣는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민주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도민공론화 수용을 위해 국회의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육아나눔터 제30호점 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서귀포시 강정중흥S클래스아파트에서 수놓음육아나눔터 제30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0호점은 올해 처음 개소하는 수놓음육아나눔터로 서귀포시 강정중흥S클래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축이 돼 운영된다. 이곳은 자녀 돌봄에 대한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랑방 공간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놓음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녀 돌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돌봄 소통공간”이라며 “2020년까지 도내 43개소 조성을 목표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 4·3 넘어 평화산업으로 미래 그려야”

강창일·JDC 공동 토론회서 박명림 교수, 발표 통해 제언 4·3 완전 해결 의미 등 강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모델 성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제주는 평화산업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련된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토론회에서 “제주를 새로운 세계평화도시, 평화공동체의 모델로 창출, 제시하

는 것이 평화의 제주가 과거의 학살과 현재의 화해를 넘어 미래의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면 4·3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평화모델의 성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에 한반도가 이런 평화모델을 제시했다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시대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고통을 치른 분들에게 공감하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분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 사회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미래지향적

인 정신, 방향, 사업을 통해 제주, 한국사회, 동북아, 세계에 제주모델을 제시하고, 제주인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제주는 20세기 냉전과 학살, 전쟁, 이데올로기의 현장을 보여주는 세계 및 동아시아 평화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한국과 동아시아, 세계 많은 평화교육, 연구, 감동관리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창일 국회의원과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평화산업 육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부미현기자

檢,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대와 고려대, 단국대 등 10여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오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또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 조 후보자의 처남의 자택

도 대상에 포함됐다.

내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와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준비단 출근길에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019 한·중·일·대만 국제배구교류전 및 제11회 한라산배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2019 한·중·일·대만 국제배구교류전 및 제11회 한라산배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8월 31일(토) ~ 9월 1일(일) 오전 9시
- 장 소 : 사라봉다목적체육관, 한라중체육관
- 개회식 및 만찬 : '19년 8월 31일(토) 19시 제주칼호텔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
- 후 원 : 대한민국배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문 의 : 전무이사 ☎ 010-3698-1281

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
회 장 부 동 석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濟)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욕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물리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소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